

# 덩잇글 구조가 설명문 요약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허선익\*

## <차례>

- I. 문제의 제기
- II. 연구 방법
- III. 분석 및 논의
- IV. 결론

## I. 문제의 제기

요약하기는 쓰기와 읽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요약의 과정에서 요약 주체는 한 편의 덩잇글을 놓고서 능동적인 독자로서 의미 구성을 하며, 그 결과를 글로 표현함으로써 능동적인 표현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요약 주체들이 요약한 글들을 보면,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은 이해와 표현의 주체로서 역할과 능력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그와 같은 차이가 제시한 덩잇글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지 검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요약하기에 대해서는 이미 서혁(1994), 김재봉(1999)에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류상민(2004), 문선모·배한권(1995), 김정아(1997)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이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독서 읽기

\* 경남과학고등학교 교사, hesi@chol.com

전략 및 요약 전략 학습의 효과를 검정하고 있다. 이들 논의들은 요약하기 학습과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요약글은 한편의 완결된 자족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허선익, 2010),<sup>1)</sup> 요약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의사소통 활동이든 맥락과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의도나 목적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약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요약하기를 가르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논의를 위해 먼저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대상과 연구 절차를 제시하기로 한다(2장). 다음으로 학생들의 요약글을 채집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며, 논의가 지니는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3장). 끝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가설

조사연구에서는 먼저 과제 길라잡이에서 요약의 방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핵심은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의 조작을 통하여 이들이 요약하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sup>2)</sup> 이 연구에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허선익(2010)에서는 논설문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 덩잇글, 과제 요인에 따른 요약하기 변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2) 글감은 편의상 부록에 있는 순서에 따라 ‘페루·아르헨티나-1, 2, 3, 4’로 부르기로 한다. 제시된 네 개의 덩잇글을 아우를 때는 ‘페루·아르헨티나’ 혹은 ‘제시된 덩잇글’로 부르기로 한다.

가설 :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의 차이에 따라 요약글 품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덩잇글의 이독성(readability)이나 요약글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의 차이 때문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미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면 읽기 경험의 폭도 어느 정도 넓을 것이고, 어휘나 문장과 문장 연결에 대한 인식도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E. 칸취(Kintsch 1989)나 김명순(1998)에서 어느 정도 검정이 이뤄진 바 있다. 김명순(1998)에서는 사전 지식이 적을 때 상중하위 수준에서 구조가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지적하였다. 특히 중요도 평정에는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학습자들에게 덩잇글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지적하였다. E. 칸취(1989)<sup>3)</sup>에서는 학령에 따른 집단별 차이에 따라 글의 짜임이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있다. 또한 이미 이뤄진 텍스트언어학적 논의<sup>4)</sup>는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이해 수준의 정도에 따라 덩잇글의 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는 데서 이런 연구의 의의를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구조적인 차이가 요약글의 품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히려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구조에 따라 회상되는 정보의 양이나, 이해의 정도를 가늠하는 이전의 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이해의 정도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며, 한 편의 자족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요약글을 쓰는 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즉 덩잇글 구조의 차이와 요약글 품질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덩잇글 이해에 대한 정신적 표상[=상황모형]을 글말로 옮겨놓은 요약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더 정확하게 말하면 E. 칸취(1989)에서는 두 가지 변인을 이용하였다. 하나는 덩잇글 구조 변인이고 다른 하나는 과제 변인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덩잇글 구조 변인만을 다루기로 한다. 한편 김명순(1998)에서도 사전 지식과 덩잇글 구조를 고려하였다.

4) 대표적인 논의로 김봉순(1996, 2002), 이삼형(1993), 박진용(2003), 이은희(2001)를 들 수 있다.

## 2. 연구 절차

### 1) 연구 대상

경남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a반 23명, b반 24명, c반 23명, d반 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설의 검정을 위해서는 네 개 학반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조사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을 대상으로 2008학년도 1학기말 국어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 반 학생들의 국어성적에 대한 동질성 검정

반	최소값 (MIN)	최대값 (MAX)	평균 (M)	표준편차 (SD)	F-통계량	유의확률 (p)
a	62.92	89.48	76.26	8.21	1.671	.179
b	64.41	90.57	80.96	6.34		
c	59.18	94.19	78.79	8.34		
d	62.58	89.64	79.32	5.99		

동질성 검정 결과 반별 국어성적이 요약글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9월 셋째 주 국어시간에 요약과제를 주고 요약하게 하였다. 특히 회상을 통한 상황 모형 설정의 점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약글을 쓰는 과정에서, 제시된 덩잇글을 자유롭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반별로 네 갈래의 덩잇글을 주고 제목을 붙이고 글 내용을 요약하라고 하였다. ‘페루·아르헨티나-1’은 a반에, ‘페루·아르헨티나-2’는 b반에, ‘페루·아르헨티나-3’은 c반에, ‘페루·아르헨티나-4’는 d반에 나누어 주었다. 덩잇글 구조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가정에 따르면 나이도는 ‘페루·아르헨티나-1<2<3<4’으로 갈수록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의도를 갖고 반별로 나누어 준 것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 학생 개인별 변인에 초점을 모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두 94명에

게 과제를 부과하였으나 한 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 2) 덩잇글 자료

덩잇글 자료는 E. 킨취(1989)에서 제시한 덩잇글을 우리말로 뒤치고 영어과 교사에게 보여주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덩잇글은 설명문의 전형적인 구조 가운데 하나인 비교—대조의 구조로 되어 있다. 설명대상은 페루와 아르헨티나이다. 글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sup>5)</sup>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수준이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E. 킨취(1989)에 따라 네 개의 본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저자의 의도가 잘 반영된 기본이 되는 덩잇글은 ‘페루·아르헨티나—1’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덩잇글은 거시구조와 미시구조가 잘 짜여 있으며 비교되는 두 나라의 속성들이 긴밀하게 잘 대응되도록 짜여 있다. 그에 비해 ‘페루·아르헨티나—2’는 거시구조는 같지만 뒤치면서 문장의 구조에서도 안은문장이 많이 사용되어 길고 복잡하도록 하였다. 또한 덩잇글 단위들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명시적인 접속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sup>6)</sup> ‘페루·아르헨티나—3’은 미시구조는 잘 되어 있지만 거시구조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덩잇글이다. 전체적으로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에서 혼란스러운 글은 ‘페루·아르헨티나—4’였다.<sup>7)</sup>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

5) E. 킨취(1989)에 따르면 ‘페루·아르헨티나—1’의 경우 6학년 수준의 학생들에게 소리 내어 읽기를 하였을 때 실수 비율이 2~3%에 지나지 않는 글이라고 하였다. 영어 원문에 따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뒤치는 과정에서도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은 어휘를 선정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어휘나 문장 구조로 인한 어려움이 특별히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6) 접속어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여주는 표지(text-marker)가 사용된 빈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페루—아르헨티나—1’은 9회, ‘페루—아르헨티나—2’는 1회, ‘페루—아르헨티나—3’은 7회, ‘페루—아르헨티나—4’는 1회이다.

7) 실제로 이런 덩잇글이 주는 혼란스러움을 표현한 참가자의 덧붙임은 이런 덩잇글 구조의 차이를 보여준다.

“접속사구가 모두 빠져 있어 글의 흐름이 잘 파악되지 않을뿐더러 문장, 문단 사이의

과 같다.

〈표 2〉 제시한 덩잇글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양상

덩잇글	거 시	미 시	제시된 학반
페루·아르헨티나-1	+	+	a
페루·아르헨티나-2	+	-	b
페루·아르헨티나-3	-	+	c
페루·아르헨티나-4	-	-	d

이 조사연구에서 사전 지식은 제시된 글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모두 페루나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막연한 지식을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sup>8)</sup> 아울러 제시된 네 개의 덩잇글 처음과 끝에 덩잇글의 거시명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시한 덩잇글에서 정보 뮤음은 다음 <표 3>에서 제시한 것처럼 14개 정도이다.<sup>9)</sup> 이들은 그 표에서 드러나듯이 나타나는 자리와 차례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페루·아르헨티나-1’과 ‘페루·아르헨티나-2’에서 정보 뮤음 순서에 차이가 없는 것은 이들의 거시구조가 같기 때문이다.

---

내용 연결에 일관성이 없고 마지막 문단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며, 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요약글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d02)”

- 8) 과제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다른 정보 원천으로부터 기워주는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한 편의 글을 제외하면(c05), 대부분의 요약글에서는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요약이 이뤄졌다.
- 9) 실제로 <표 3>에는 15개의 정보 뮤음이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 페루의 인디언에 대한 언급은 아르헨티나의 인디언 언급 부분과 비교 또는 대조되지 않는다. 또한 연구자가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 모르지만 인디언이 인구 구성에서 많고 적음이 나라가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근대화, 산업화가 서구를 본뜨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종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3〉 ‘페루–아르헨티나’ 덩잇글의 정보 뮤음

정보 뮤음	페루·아르헨티나-1		페루·아르헨티나-2		페루·아르헨티나-3		페루·아르헨티나-4	
1	페루	경관	페루	경관	페루	인구	페루	인구
2		기후/ 초목		기후/ 초목		교육		교육
3	아르헨	경관	아르헨	경관	아르헨	천연 자원	아르헨	천연 자원
4		도시		도시		도시		도시
5		농업		농업		인구		인구
6	페루	천연자원	페루	천연자원	페루	교육	페루	교육
7		농업		농업		경관		경관
8		천연자원		천연자원		인디언		농업
9	아르헨	인디언	아르헨	인디언	아르헨	정부	아르헨	교육
10		인구		인구		농업		정부
11		정부		정부		교육		천연자원
12	아르헨	교육	페루	교육	페루	정부	페루	인디언
13		인구		인구		교육		교육
14		교육		교육		기후/ 초목		경관
15	아르헨	정부	페루	정부		농업		농업

E. 킨취(1989)에서는 위 덩잇글을 놓고서 요약이 이뤄지는 수준을 넷으로 나누어 필요한 명제 개수를 제시하고 있다. 1수준은 글감에 대한 포괄적인 진술이나 서술 방식, 2수준에 있는 명제를 아우르는 진술이 포함된다. 이를테면 ‘페루와 아르헨티나에 관한 글이다.’거나 ‘두 나라가 비교된다.’ 혹은 ‘세 가지 요인이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와 같은 진술이 포함된다. 2수준에서는 추론된 하위 주제로 비교되는 자리, 경제, 사회·정치라는 세 개의 요소와 관련된 진술이 포함된다. 예컨대 ‘지리적인 측면에서 아르헨티나와 페루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와 같은 서술내용이 포함된다. 3수준은 위 〈표 3〉에서 제시한 정보뮤음들이 포함된다. E. 킨취(1989)에서 제시한 정교한 추론이 이 수준에 듈다. 4수준은 덩잇글에 나오는 세부내

용들이 포함된다. 이는 대체로 거시적 차원의 명제에서 미시적 차원의 명제 순으로 수준이 잡혀 있다. 읽는이가 상황모형에 바탕을 둔 요약글을 쓰게 되리라 가정한다면 1수준과 2수준에 들어 있는 진술문(혹은 명제나 문장)이 포함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연구자가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덩잇글의 내용 수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음 (1)은 연구자가 작성한 ‘페루·아르헨티나’ 덩잇글의 요약글이다.

(1) ⑦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퇴보에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⑦ 페루와 아르헨티나를 비교해 보면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⑧ 여기서는 자연환경과 경제적인 조건, 사회문화적인 여건을 중심으로 살펴기로 한다. ① 먼저 자연 환경에서 두 나라는 다르다. ⑧ 페루의 자연환경은 척박하다. 페루는 눈으로 덮인 안데스 산맥이 페루의 대부분을 덮고 있고 공기는 차고 건조하다. 그에 비해 아르헨티나는 넓은 폭장이 있는 초원이 중심부에 있고, 곳곳에 대도시가 발달해 있다.

② 경제적인 면에서도 두 나라는 다르다. 아르헨티나는 팜파스에서 나오는 밀과 쇠고기가 많이 생산되지만 파는 데 어려움이 있다. 대신에 광물 자원이 거의 없어서 공산품은 거의 수입을 해야 한다. 반면에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페루는 안데스 산맥에 광물이 풍부하여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디언들은 산양과 야마를 기르는데 야마에서 나온 털은 높은 가격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패션 매장으로 팔릴 수 있는 아름다운 스웨터와 담요를 짜는 원료가 된다.

③ 사회문화적인 여건에서도 두 나라는 다르다. 페루의 대부분은 인디언이고 자부심이 강하다. 백인들의 지배를 받았지만 스페인 문화에 어울리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스페인 말로 읽고 쓸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아르헨티나에는 오늘날 인디언이 거의 없다. 대도시의 거리는 바쁘고 활기차며 토론 문화를 꽂피워 마침내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었다.

④ 따라서 페루와 아르헨티나는 미래에는 매우 다르게 발전할 것이다.

이 요약본에는 모두 40개의 명제가 포함되어 있다.<sup>10)</sup> 세 문장 ⑦은 원

10) 이들은 E. 킨취(1989)에서 제시한 수준에 따라 ⑦, ⑦, ④, ④는 1수준에 포함되는 명제이다. 그에 비해 ①, ②, ③은 2수준, ⑧과 같은 명제는 3수준이며, ⑧에 관련되는 세부 명제들이 4수준이다.

래 덩잇글에 나오지 않는 명제로 일반화의 과정을 거쳐 산출한 명제[정보 더하기]이다. ㉡, ㉢은 원래 덩잇글에 제시된 명제이다. 첫 번째 문장은 이 덩잇글의 거시명제에 해당하고 두 개의 명제로 이뤄진 두 번째 문장은 서술방법과 관련되어 있다. ㉣ 문장도 덩잇글에 제시되어 있는 문장이다. 그렇지만 ①, ②, ③ 문장은 요약의 과정에서 따로 산출된 거시명제로 글의 내용을 일반화하고 있다. ㉤ 문장은 E. 킨취(1989)에 따르면 정교회(추론)에 해당한다.

### 3. 결과 처리

#### 1) 채점 기준

설명문 요약글의 채점 항목에 대해서는 협의(2009)<sup>11)</sup>을 참조하였다.

〈표 4〉 설명문 요약글의 채점 기준<sup>12)</sup>

연번	채점 요소	배점
1	거시명제를 잘 파악하고 표현하는가?	2
2	관련되는 요소들을 묶어서 일반화·재구성하여 표현하는가?	2
3	설명 요소들의 계층관계를 파악하여 분명하게 표현하는가?	2
4	설명의 구조에 맞게 요약하고 있는가?	2
5	요약된 글은 의미연결이 잘 되고, 결속이 잘 되어 있는가?	2
합계		10

11) 협의(2009 ㉡)에서는 학생들이 산출한 설명문 요약글의 특징을 귀납적으로 수렴하여 채점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협의(2010)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이들 채점 항목은 제시되는 설명문의 특징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거친 결과, 요약글에 대한 채점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12) 요약글의 채점에서는 일차적으로 요약규칙을 적용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이해의 정도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도록 자족적인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들을 요약 규칙이 적용되는 차원이 쉽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글 전체의 거시명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는 요약글의 품질을 결정한다. 아울러 다양한 설명 요소들의 위계를 정리하고 이들을 일반화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접하는 글들이 언제나 잘 짜여 있고, 체계적인 구성을 지닌 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2와 3, 4에 나타난 평가 항목이 필요하다. 잘 짜여 있는 글이라도 요약 주체가 이해하는 모습에 따라 재구성되는 하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요약을 위해 제시한 덩잇글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거시구조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요약하는 과정에서 내용 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재구성해야 한다. 5는 요약 글이 한편의 완결된 글의 속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평가 기준이다.

위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요약글을 평가하였다. 학생들이 산출한 요약글에 대하여 평가 항목에 대해 수준에 따라 세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요약글의 경우 평가 기준에 부합하면 2점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충족되는 정도가 약할 때는 1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채점 요소별 3등급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위의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다른 한 명의 평가자와 a반, d반 요약글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자와 그 평가자 사이의 점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823$ ,  $p<.01$ ). 이로써 평가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채점

학생들이 제출한 요약글을 위의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시명제는 제시되어 있지만 일반화와 삭제와 같은 요약 규칙과 정교화와 같은 요약글 산출 규칙 적용, 의미 연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채점하였다. 아울러 거시구조가 왜곡되어 있는 ‘페루·아르헨티나-3, 4’ 덩잇글의 요약하기 전략과 관련이 있는 둘이 주기와 같은 요약글 산출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다음은 이와 같은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한 본보기 요약본이다.

(2) 개발도상국이 발전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에는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페루와 아르헨티나를 예로 들어 보겠다.

우선 페루는 안데스 산맥이 뻗어 있어 춥고 공기가 희박하며 공기 중엔 수분이 거의 없다. 아르헨티나는 광활한 초원으로 되어 있어 수많은 소떼를 돌본다. 밀 농장이 매우 많으며 충적토가 기름지다.

페루인들의 대다수는 소규모 농부들로 그들 가족이 기른 작물들로 근근히 생활해 나간다. 나머지는 대규모 공장에 고용되어 커피, 면화, 사탕수수 등을 생산하여 수출한다.

페루인들은 한때 강력한 제국이었던 잉카의 후손들인 인디언이다. 그러나 스페인 정복자에 의해 잉카가 파괴되며 압제받는 민족이 되었고, 스페인으로부터 소외되어 대부분은 스페인 말을 할 줄 모른다.

아르헨티나는 부산한 도시의 거리가 매우 분주하고 활동적이며 최근엔 신문 잡지의 출판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페루와 아르헨티나의 미래 모습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b01)<sup>13)</sup>

(3)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퇴보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한다. 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가 바로 아르헨티나와 페루이다. 이들은 차이점이 너무나도 많은데 페루는 대부분이 인디언이지만 소수의 백인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지하자원이 많다. 또한 고지대의 사람들은 양과 야마를 기르며 이것들을 미국과 유럽의 패션 매장에 판다. 주로 농부들이 많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대규모 농장에서 일을 한다.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소수의 인디언들만이 그곳에 살지만 출판의 자유가 허용되어 민주적인 정부가 수립되어 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지하자원이 거의 없으며, 그래서 자동차, 기계, 옷과 같은 것들을 다른 나라에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살림だ.

이렇게 아르헨티나와 페루는 매우 대조적인 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 나라의 행보가 얼마나 달라질지도 관심가질 만하다. (c23)

(2)는 4점을 부여하였는데, 글에 제시된 1수준의 거시명제만 그대로 사용할 뿐, 2, 3 수준의 거시명제가 없다. 또한 4수준의 상세한 정보도 글

13) 이 연구에서 a, b, c, d는 서로 다른 덩잇글을 대상으로 요약한 반을 나타낸다. 따라서 b01은 거시구조와 미시구조가 잘 갖추어진 ‘페루·아르헨티나-2’의 덩잇글을 대상으로 요약한 반의 첫 번째 학생임을 나타낸다.

에 제시된 것과는 달리 폐루에 치중되어 있어서 불균형이 나타난다. 또한 대조의 설명 구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때문인지, 내용들 사이의 관계나 위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시된 대로 요약하고 있는 글이다. 그에 비해 (3)은 6점을 부여하였는데, 내용들 사이의 위계나 관계를 염두에 둔 표현이 눈에 띈다. 또한 정보, 명이의 내용들을 일반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글의 전체적인 서술 방법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요약글은 일반화의 정도가 한 문장에 그치며, 글 전체가 유기적인 흐름을 이루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4) 개발도상국들의 미래의 성공여부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한다. 폐루와 아르헨티나를 비교해 보면 이 점을 살펴보자.

지리적으로 폐루는 차갑고 공기가 희박한 안데스 산맥에 위치하고, 대서양 연안의 강 어귀에는 위풍당당한 건물과 대로가 있는 아르헨티나의 도시들이 펼쳐져 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자. 폐루인들은 대부분 잉카의 후손인 인디언들이다. 그들은 스페인 말을 할 줄 모르며, 소수만이 읽고 쓸 수 있도록 배웠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매우 적은 인디언 소수 민족만이 살고, 거리는 활기가 넘치며, 야외 간이 음식점에는 살아 있는 토론을 들을 수 있다.

폐루는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소수 핵심 백인 농장주들에게 지배되었다. 많은 폐루 사람들은 소규모 농부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대규모 농장에 고용되어 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을 보자. 폐루의 안데스 산맥에는 광산들이 많고 그곳에서 금, 은, 구리, 납 등을 수출한다. 또한 여인들이 생산한 스웨터, 담요들은 미국과 유럽의 패션 매장으로 판로를 찾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팜파스라는 초원에서 막대한 소떼를 길러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밀과 쇠고기를 생산한다. 하지만 대규모 공장이 불가능해 다른 나라에 의존하여야 한다.

이처럼 지리, 문화, 정치, 경제적인 요인 등 많은 요인들이 개발도상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따라서 폐루는 퇴보와 가난으로 물러나고, 아르헨티나는 전도유망한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d03)

(5) 개발도상국은 많은 요인들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폐루와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차이점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로, 그 나라를 구성하는 인구에 대한 것이다. 페루인의 대부분은 인디언인, 아르헨티나는 소수의 인디언 민족만이 살고 있다.

두 번째로 문화적인 것이다. 페루인은 대부분이 읽고 쓸 줄 모르며, 인디언들은 과거 자신의 땅에서 압제를 받았다.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많은 사람들이 활기가 넘치며, 많은 토론이 이뤄지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경제적인 것이다. 페루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수익성이 높은 몇몇 광산을 개발해 왔고, 직물을 수출하고 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자신들이 생산한 밀과 쇠고기를 파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번째로 자연적인 것이다. 페루는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 있는 높은 안데스 산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곡마저도 공기가 희박하고 춥다.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매우 기름진 팜파스라는 밀 농장이 핵심부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자원에 대한 것이다. 페루는 암자와 양이라는, 직물을 만들기 좋은 자원이 있으나, 아르헨티나는 석탄, 철과 같은 광물자원이 없어 다른 나라로부터 자동차, 기계, 옷 등을 수입한다.

앞의 다섯 가지 차이점에서 보듯, 개발도상국인 페루와 아르헨티나의 미래는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매우 다르게 발전할 수 있다. (c14)

(4)는 8점을 부여한 요약글로, 거시구조와 미시구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교화와 일반화가 이뤄진 글이다.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묶어서 일반화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안목도 보여주며, 글 전개 방식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 다만 제시되는 세부 정보가 실제 제시된 덩잇글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아쉽다. (5)는 10점을 받은 글로, 거시적 차원에서 미시적 차원에 이르는 정보들의 위계가 가지런하고, 글의 구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요약글을 산출하고 있다. 세부 정보에서 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덩잇글을 이해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글이라 할 수 있다.

93편의 요약글 점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12 국어교육학연구 제37집 (2010. 4)**

〈표 5〉 요약글 점수

요약글	점 수						
a01	10	b01	4	c01	2	d01	6
a02	4	b02	8	c02	6	d02	6
a03	6	b03	4	c03	4	d03	8
a04	6	b04	8	c04	6	d04	8
a05	8	b05	8	c05	6	d05	6
a06	10	b06	4	c06	6	d06	8
a07	6	b07	4	c07	8	d07	4
a08	10	b08	8	c08	4	d08	4
a09	6	b09	6	c09	6	d09	6
a10	8	b10	4	c10	8	d10	6
a11	4	b11	6	c11	6	d11	8
a12	2	b12	6	c12	4	d12	8
a13	6	b13	6	c13	6	d13	6
a14	6	b14	8	c14	10	d14	6
a15	6	b15	6	c15	4	d15	4
a16	6	b16	6	c16	4	d16	4
a17	4	b17	4	c17	6	d17	6
a18	6	b18	6	c18	10	d18	6
a19	8	b19	6	c19	6	d19	6
a20	6	b20	6	c20	6	d20	8
a21	10	b21	8	c21	6	d21	6
a22	8	b22	6	c22	6	d22	8
a24	8	b23	6	c23	6	d23	10
		b24	8				
평균	6.70		6.08		5.91		6.43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요약글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MIN	MAX	M	SD
점 수	2	10	6.26	1.78

요약글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요약글 점수는 최저점 2점에서 최대점 10점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균은 6.26점이었다.

먼저 <표 5>에서 반별 평균을 보면 요약글 품질은 ‘페루·아르헨티나-1>페루·아르헨티나-4>페루·아르헨티나-2>페루·아르헨티나-3’ 순으로 나타나 있다. ‘페루·아르헨티나-1’은 거시구조와 미시구조가 잘 되어 있으며 ‘페루·아르헨티나-4’는 거시구조와 미시구조가 좋지 않은 글이다. 당연히 거시구조와 미시구조가 잘 되어 있는 글은 요약하기에 쉬울 것이다. 그런 덩잇글에 대한 요약 품질이 좋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만 그렇지 않은 네 번째 글에 대한 요약글 점수가 높다는 것은, 덩잇글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즉 덩잇글의 짜임이 요약에 미치는 효과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페루·아르헨티나-4’와 같은 덩잇글은 요약 주체가 이해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구조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을 타개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덩잇글 구조가 요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은 두 번째 글과 세 번째 글에 대한 요약 점수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III. 분석 및 논의

#### 1. 분석

가설의 검정을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7> 거시구조에 따른 요약 점수 차이 검증

	거시구조				t	p		
	거사+(N=47)		거사-(N=46)					
	M	SD	M	SD				
점수	6.35	1.85	6.17	1.73	.465	.643		

앞의 표는 거시구조에 따른 명제수, 요약능력점수, 읽기점수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거시구조에 따른 요약글 품질에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구조에 따른 요약글 품질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미시구조에 따른 요약 점수 차이 검증

	미시구조				t	p		
	미사+ (N=46)		미사- (N=47)					
	M	SD	M	SD				
점수	6.30	2.02	6.22	1.53	.232	.817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미시구조에 따른 요약글 품질에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검증에서 드러난 것처럼 제시된 덩잇글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의 차이는 요약글의 품질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차적으로 덩잇글의 거시구조와 관련되는 명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덩잇글의 앞과 뒤에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문장과 문장의 연결에 관련되는 미시구조가 요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구조는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거시구조의 특성과 짹을 이루어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거시구조가 잘 되어 있을 때 미시구조의 특성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거시구조가 잘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요인 즉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인지적 노력이 끼어든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에서 제시한 〈표 9〉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하다.

〈표 9〉 덩잇글 구조에 따른 요약글 점수 분포표

덩잇글 점수	페루·아르헨-1 (+거시, +미시)	페루·아르나-2 (+거시, -미시)	페루·아르헨-3 (-거시, +미시)	페루·아르헨-4 (-거시, -미시)	계
2	1	0	1	0	2
4	3	6	5	4	18
6	10	11	13	11	45
8	5	7	2	7	21
10	4	0	2	1	7

점수 분포를 보면 c반의 점수 분포가 다른 반에 비해 6점 이하에 집중 분포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c반에 제시된 덩잇글은 거시구조가 좋지 않으면서 미시구조만 좋은 덩잇글의 경우 학생들이 요약하는 일반화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시구조는 그 자체로 요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미세한 정보에만 초점을 모으도록 함으로써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지 못한다. 실제로 거시구조는 같고 미시구조만 다른 두 집단 a, b를 대응표본 검증한 결과 이들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4)</sup>

구조 변인에 따른 집단별 분산분석의 결과도 집단들 사이의 요약글 품질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구조 변인에 따른 집단별 점수에 대한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9.391	3	3.130	.983	.405
집단-내	280.348	88	3.186		
합계	289.739	91			

레빈통계량에서 분산이 같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사후 검사를 통한 동질성 검사 결과 이들이 모두 같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거시구조와 미시구조가 완전히 반대에 있는 a, d 반의 요약글 품질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도 이를 집단에서 요약글 품질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t=.449$ ,  $p=.657$ )

〈표 11〉 거시구조, 미시구조에 따른 요약능력 점수 차이검증

	거시, 미시 구조								F	유의 확률		
	거시+/미시+ (N=23)		거시+/미시- (N=24)		거시-/미시+ (N=23)		거시-/미시- (N=23)					
	평균	표준 편차										
점수	6.70	2.14	6.00	1.48	5.91	1.86	6.43	1.59	.983	.405		

거시, 미시구조에 따른 요약 점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거시, 미시구조에 따른 요약글 점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결론 및 의의

이 연구에서 내세운 가설은 검정의 결과 기각되었다. 즉 고등학교 수준에서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의 차이는 요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5)</sup>

전체적인 차원의 결론으로 보면 간단하지만 고등학교 수준의 교재 마련에서 덩잇글의 거시구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미시구조가 잘 짜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글에 나타난 정보의 중요도 평가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읽기 교육에서 중요도는 글의 주제와 관련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글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세부내용을 기억하는 정도는 학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덩잇글을 통해 제시

15) 논문 심사과정에서 이 연구 결과가 구조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배경지식의 차이는 요약이 끝난 뒤 개인별 면담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렇지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자연계열을 집중이수하기 위해 들어온 학생들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폐루와 아르헨티나라는 지역에 대해 제시된 덩잇글에 나타난 정보를 아는 정도는 균질적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에서 차이에 대한 내용은 앞의 각주 6, 7과 〈표 3〉 참조

되는 정보의 열개와 주제의 파악은 어느 시기애나 덩잇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정보의 여러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세부내용을 기억해야 하는 덩잇글의 경우에는 미시차원의 정보 조직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세부내용을 기억하는 정도는 작업기억에 달려 있는데 작업기억을 더 잘 부려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시구조가 잘 짜여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 조사연구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읽고 이해하기 교육에서는 세부 내용의 연결이나 미시적 차원의 이해가 자동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업기억에 미치는 부담의 양이 요약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미시차원에서 정보를 자세하고 짜임새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요약에서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어느 한쪽 요인만으로 분석을 하기는 문제가 있다.<sup>17)</sup> 발달이라는 요인에 따른 분석을 하고 있는 E. 킨취(1989)와 이 연구는 초점이 다르다. 즉 나이별 집단에 따른 요약글과 나이가 같은 집단에서 나온 요약글은 성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거시구조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거의 선택 수준에서 요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정 수준에 이른 학생들<sup>18)</sup>은 비슷한 수준으로 정보 선택과 일반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미시구조는 경우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즉 거시구조가 잘 짜여 있지 않을 경우,

16) 다만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거시구조가 적절하게 짜여 있어야 요약하기에서 추론을 더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17) 발달이라는 요인에 따른 분석을 하고 있는 E. 킨취(1989)와 이 연구는 초점이 다르다. 즉 나이별 집단에 따른 요약글과 나이가 같은 집단에서 나온 요약글은 성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거시구조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

18) 실제로 이들 학생들의 적성 검사에서 이들 93명의 어휘—언어 적성 검사 결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앞의 한국가이던스에서 실시한 다면적능력검사 통계에 따르면 어휘적용 능력 평균 T 점수와 언어유추능력의 T 점수가 모두 상위 80~90%에 드는 점수인 62점으로 나타나 이미 이 나이 또래의 평균을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미시구조에서 결속은 오히려 전체적인 거시구조를 파악하는 데 방해를 주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거시구조가 잘 짜여 있을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거시구조가 잘 짜여 있지 않을 때에도 미시구조가 잘 결속되지 않는 것이 더 요약주체의 인지 노력을 끌어내서 요약글 품질을 더 좋게 한다는 부차적인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내세운 가설은 수용될 수 없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몇몇 대안가설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읽기 능력 그 자체의 타당도나 신뢰도가 문제 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비교적 균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귀무가설들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 넓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에서 거시구조를 통해 드러나는 의미연결과 미시구조를 통해 이뤄지는 결속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조사연구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적 요인과 요약하기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가설을 설정하고 고등학생 93명이 산출한 요약 글을 채점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들에 따라 요약글의 품질이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애초에 내세운 가설 거시구조와 미시구조가 요약글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에게 구조적 요인이 덩잇글의 이해(상황 모형의 구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 본 논문은 2010. 2. 28. 투고되었으며, 2010. 3. 12. 심사가 시작되어 2010.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 참고문헌

- 김봉순(1996), 텍스트 의미구조 표지의 기능에 대한 실험연구, 『독서연구 창간호』, 152~193.
- 김재봉(1999), 『텍스트 요약 전략에 대한 국어교육학적 연구』, 집문당.
- 김정아(1997), 읽기 학습에서 독서 전략 및 요약 전략이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 김지홍(2010), 언어의 심층과 언어교육, 도서출판 경진.
- 김효선(2002), 중학생에 대한 읽기 전략 지도의 효과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 문선모·배한권(1995), 교재구조 훈련과 요약하기 훈련이 설명적 교재 처리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연구』 33호, 한국교육학회.
- 박진용(2003), 읽기 학습을 위한 텍스트구조의 의미관계 고찰, 『독서연구 9』, 147~178.
- 서 혁(1994), 요약 능력과 요약 규칙, 『국어교육학연구』 4, 국어교육학회.
- 이은희(2001), 텍스트 언어학과 국어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 허선익(2009 ㄱ), 논설문 요약의 모습이 평가에 지니는 함의, 『새국어교육』 제81호, 한국 국어교육학회. 325~356.
- \_\_\_\_\_ (2009 ㄴ), 설명문 요약의 특징이 설명문 요약글 평가기준 설정에 지니는 함의, 『국어교육연구』 제45집, 국어교육학회. 411~448.
- \_\_\_\_\_ (2010), 논설문 요약글 산출에 관련된 변인 분석, 경상대학교 박사논문.
- Alderson(2000), *Assessing Read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iter and Scardamalia(1987), *The Psychology of written composition*, Hillsdale, NJ : L Erlbaum.
- van Dijk(1980), *Macro Structur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Kintsch, E.(1989), Macroprocess and Microprocess in the development of Summarization Skill, *ICS Technical Report #89-5*, University of Colorado.
- Kintsch, W.(1998), *Comprehension*, Cambridge Univ. Press(김지홍 뒤침(2008), 『이해』 원고본).
- Grabe and Kaplan(1996), *Theory and Practice of Writing*, Pearson Education(허선익 뒤침 (2008), 『쓰기 이론과 실천 사례』, 박이정).
- Weigle(2002), *Assessing Writ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초록>

## 덩잇글 구조가 설명문 요약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허선의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적 요인과 요약하기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가설을 설정하고 고등학생 93명이 산출한 요약글을 채점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에 따라 요약글의 품질이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애초에 내세운 가설 거시구조와 미시구조가 요약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통계적인 분석과는 달리 조금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더 검증이 필요한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미시구조는 경우에 따라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거시구조가 잘 짜여 있지 않을 경우, 미시구조에서 결속은 오히려 전체적인 거시구조를 파악하는 데 방해를 주지만 거시구조가 잘 짜여 있을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렇지만 거시구조가 잘 짜여 있지 않을 때에도 미시구조가 잘 결속되지 않는 것이 요약주체의 인지 노력을 더 끌어내서 요약글 품질을 더 좋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큰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검정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핵심어】 요약하기, 설명문, 거시구조, 미시구조, 요약글 품질, 상황 모형

<Abstract>

An Influence of Structure on Summarizing for Expository Text

Heo, Seon-ik

In this article, it is proved that structural factors do not influence on summarizing in the case of highschool students. Subjects are divid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random assignment. These groups are given four kinds of texts which were discriminative from each other in the aspect of both macro-structure and micro-structure.

Aside from statistical analyses, it has been known that micro-structure parameters have two fold function in the course of summarizing, that is, in the construction of situation model. In the case of good macro-structure, its function is trivial. But when given poor macro-structured text for students, poor micro-structure provoking subjects' cognitive struggling. These facts need to be proved in the large-sized groups.

【Key words】 summarizing, expository text, macro-structure, micro-structure, quality of summation, situation model